

프랑스 초등지리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함의 - 2020 개정 Cycle 2~3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이간용* · 김현주**

Characteristics of Geography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 Focused on 2020 Cycle 2~3 Curriculum -

Khan Yong Lee* · Hyun Ju Kim**

요약: 이 연구는 프랑스의 2020 개정 초등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프랑스 초등지리교육의 특성과 그 함의를 고찰한 것이다. 프랑스의 초등지리교육은 저학년에서는 지리적 주제의 비중이 높은 통합교과인 「세계탐구」, 고학년에서는 독립 교과인 「역사·지리」 등의 높은 교과적 위상을 확보한 채,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초등학교 과정(Cycle 2) ~ 중학교 과정(Cycle 4) 동안 모든 교과에서 배양해야 할 법교과적 공통 역량(기본공통 5대 영역) 중 하나(세계 및 인간 활동의 재현)도 지리교육과 관련성이 높다. 그리고 프랑스의 초등지리교육은 위치, 공간조직, 생활양식, 경관, 삶터, 이동, 통신,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지리 주제를 중심으로, 단위 주제 내에서는 지평확대 방식을, 주제별로는 다양한 공간 스케일을 넘나드는 동심원확대 방식을 동원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내용 선정 및 조직을 통하여 프랑스의 초등지리교육은 궁극적으로 실존 공간으로서의 삶터에 대한 이해와 세계를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의 함양을 추구한다. 이상의 특성들은 지리교육의 본연성에 대한 성찰, 위치 학습 및 삶의 공간적 측면 이해 강화 필요성, 주제별 지평확대 방식 적용 가능성 등 우리의 초등지리교육에 모종의 함의를 준다.

주요어: 2020 개정 프랑스 초등교육과정, 프랑스 초등지리 교육과정의 특성, 지리교육적 함의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French elementary geographic education by analyzing the 2020 elementary curriculum in France. Elementary geographic education in France is systematically conducted from an early age, securing a high level of subject status such as 「Questions of the World」, an integrated subject with a high proportion of geographic topics in the lower grades, and 「History and Geography」, an independent subject in the higher grades. In addition, one of the common cross-curricular competencies (representation of world and human activities) that must be cultivated in all subjects during the elementary school course (Cycle 2) to the middle school course (Cycle 4) is also highly related to geographic education. In addition, elementary geographic education in France is characterized by organizing the contents by using the expanding environments framework within the unit subjects such as location, space organization, lifestyles, landscapes, life place, movement, commun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centric circle expansion method that crosses various spatial scales for each subject. Through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such contents, elementary

*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ylee@gnu.ac.kr

** 한밭초등학교 교사(Teacher, Hanbat Elementary School), floralsong7@naver.com

geographic education in France ultimately seeks to understand the place of life as an existential space and to cultivate a spatial perspective on the world. The characteristics have some implications for our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such as reflecting on the nature of geography education, the need to strengthen understanding of spatial aspects of location and life,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method of expanding horizon by subject.

Key words: 2020 French primary curriculum,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primary geography curriculum, geography educational implications Curriculum

I. 서론

프랑스의 지리교육은 대학입학시험 필수과목으로서의 높은 교과적 지위, 공간조직론에 기초한 사회경제지리 주제 중심의 내용, 다양한 공간 스케일의 적용, 크로키(croquis)라는 독특한 시험 문항 등 그 고유성과 독특성으로 인해 늘 지리교육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이상균·권정화, 2011; 이간용, 2013).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난 10여 년에 걸쳐 프랑스 지리교육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이상균·권정화, 2011; 이간용, 2013; 이상균·정프랑수아 페민느, 2014; 이상균·마갈리 아흐두앙, 2017; 이상균·김병연, 2019; 이서영·이상균, 2020), 프랑스의 지리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사,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보기 드물게 지리교육 전 분야를 망라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지리교육의 세계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지리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최근 교육과정 이전 중등지리교육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초등지리교육의 특성을 다룬 연구라 하더라도 교육과정보다는 교과서를 다룬 연구에 그치고 있어 그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최근 두 시기(2015 및 2020) 초등지리 교육과정의 체제 및 내용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의 초등지리교육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세계의 다양한 지리교육적 특성을 밝히는 것 자체로 학문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교육의 목적으로서 공간조직의 이해를 목적으로 표방하는(이상균·마갈리 아흐두앙, 2017) 프랑스의 지리교육은 우

리 초등지리교육의 새로운 정향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함의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분석 자료는 최근 개정된 프랑스 2020 교육과정(MÉNJS, 2020, Programmes Du Cycle 2; MÉNJ, 2023, Programmes Du Cycle 3) 및 직전 교육과정인 2015 교육과정(MÉNESR, 2015 Programmes Pour Les Cycles 2, 3, 4) 문서이다. 분석의 주요 틀은 초등지리 교육과정의 체제 및 내용 특성과 변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용어나 제목 등에 프랑스어 원문이 병기될 것이다. 본 연구는 거의 두 세대 이상 동안 체제의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온 우리의 초등지리교육에서 내용 선정 및 조직에 모종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할 때, 의미 있는 선도적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II. 프랑스의 학제 및 초등교육과정 개관

프랑스의 기본 학제는 3-5-4-3제로서 유치원 3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마크롱 정부의 교육개혁(2017) 이후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표 1과 같이 초·중등과정에 교육 주기(Cycle)를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초등학교는 5년 과정으로서, CP(준비과정), CE1(기본과정1), CE2(기본과정2), CM1(중간과정 1), CM2(중간과정2)로 이루어진다. CP는 우리의 초등학교 1학년, CM2는 5학년에 해당한다. CP, CE2는 매해 국가 학력평가 대상 학년이다. 중등교육의 경우, 중학교는 4년 과정으로서, 6, 5, 4, 3학년으로 구성되며, 6학년은 국가 학력평가 대상 학년이다. 마지막 학년인 3학년 3학기에 Brevet라는 중학교 졸업 시험을 치르고 중학교 졸업학위를 받는다. 고등학교(lycée)는 3년 과정으로서, Seconde, Première, Terminale로 짜여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으로는

바칼로레아가 있다(프랑스한국교육원, 2022).

프랑스의 초등교육과정은 표 1에서처럼 Cycle 2~3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Cycle 2는 CP, CE1 및 CE2의 과정을 망라한다. Cycle 2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성격을 ‘세계 탐구(interroger le monde)’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점 목표는 프랑스어의 숙달이다(MÉNESR, 2015, 4; MÉNJS, 2020, 2).

그런데 교육과정의 성격에 관한 총론에서, 직전의 2015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개인차 고려에 대한 진술이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에 2020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쓰기, 셈, 타인 존중’의 4대 기본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차이를 보여준다(MÉNJS, 2020, 2). 곧, 학교 교육에서 기본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방향 전환이 엿보인다.

이 Cycle 2 교육과정은

- 프랑스어(Français)
- 현대어(Langues vivantes, 외국어 혹은 지역어)
- 예술 교육(Enseignements artistiques)
- 체육·스포츠 교육(Éducation physique et sportive)
- 도덕·시민 교육(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 세계탐구(Questionner le monde)
- 수학(Mathématiques)의 7개 교과로 구성된다.

프랑스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표 2에서처럼 Cycle 2~4에 이르기까지 범교과적 성격의 ‘기본공통 5대 영역(cinq domaines du socle commun)’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시기(2015 및 2020, 이하 동일) 교육과정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3영역(개인 및 시민 육성)의 경우, 여러 사회적 및 도덕적 가치를 나열하던 것으로부터 2020년 교육과정에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 프랑스가

표 1. 프랑스의 기본 학제 및 교육 주기

교육 주기	성격		세부 구분
Cycle 1	초기학습 주기	유치원 (école maternelle)	Petite Section(PS, 3~4세) Moyenne Section(MS, 4~5세) Grande Section(GS, 5~6세)
Cycle 2	기본학습 주기	초등학교 (école élémentaire)	Cours Préparatoire(CP, 6~7세) Cours Élémentaire 1(CE1, 7~8세) Cours Élémentaire 2(CE2, 8~9세)
Cycle 3	강화 주기	중학교	Cours Moyen 1(CM1, 9~10세) Cours Moyen 2(CM2, 10~11세) 중학교 6ème(11~12세)
Cycle 4	심화 주기	중학교 (collège)	5ème 4ème 3ème
Cycle de détermination	결정 주기	고등학교 (lycée)	2nd
Cycle terminal	최종 주기		1ère Terminale

자료: 프랑스 한국교육원(2022)

표 2. 범교과적 성격의 기본공통 5대 영역

영역(domain)	내용	적용 주기
1	사고 및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Les langages pour penser et communiquer)	Cycle 2~4
2	학습을 위한 방법 및 도구(Les méthodes et outils pour apprendre)	
3	개인 및 시민 육성(La formation de la personne et du citoyen)	
4	자연 체계 및 기술 체계(Les systèmes naturels et les systèmes techniques)	
5	세계 및 인간 활동의 재현(Les représentations du monde et l'activité humaine)	

자료: MÉNESR, 2015, 6-10 및 MÉNJS, 2020, 4-7의 내용 재구성

지향하는 가치의 습득 및 공유, 시민문화 형성의 세 하위 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변화가 나타났다(MÉNJS, 2020, 5). 한편, 5영역(세계 및 인간 활동의 재현)은 그 명칭이 암시하듯, 역사 및 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다.

이 기본공통 5대 영역(이하 기본영역)은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종의 기본 역량이란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들 영역은 2영역을 제외하면, 대략 전통적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지나친 분과 학습의 병폐를 막고, 교과 간 및 학년 간 횡적, 종적 통합과 연계를 도모하려는 방식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이른바, ‘역량의 본질과 선정에 대하여 모종의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역량은, 예컨대 ‘오적 사고’ 등과 같이 교과 맥락에서 벗어나 있고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까닭에 그 달성 여부는 차치하고, 그 정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범교과 혹은 특정 교과의 역량으로서 학교 교육에서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왔던, 교과의 전통적인 최상위 핵심 아이디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어 Cycle 3 교육과정은 기본 지식(읽기, 쓰기, 셈, 타인 존중)의 획득을 공고화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바람직한 이행, 곧 학문적 지식 세계로의 점진적 및 자연스런 입문의 과정이란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목표는 Cycle 2과정에서 배운 기본 학습의 안정화와 강화로서 프랑스어의 정통이 여전한 중심 목표로 제시된다. 아울러 과학 언어, 예술 언어, 신체 언어 습득과 그것을 활용한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이 강조된다.

그리고 Cycle 3 교육과정은 다양한 학문 분야로의 입문이라는 기본 성격에 비추어 ‘역사·지리(histoire et géographie)’가 독립 교과로 등장한다. 지리의 경우, 공간에 대한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으로부터, 지평확대와 함께 다양한 스케일에서 개인과 사회 간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지식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목표가 제시된다(MÉNESR, 2015, 90-92; MÉNJ, 2023, 2-4).

이 Cycle 3 과정은,

- 프랑스어

- 현대어
- 조형미술·음악교육·예술사(Arts plastiques/Éducation musicale/Histoire des arts)
- 체육·스포츠 교육
- 도덕·시민 교육
- 역사·지리
- 과학·기술
- 수학의 8개 교과로 이루어지며, 두 시기 교육과정에서 동일하다.

‘기본공통 5대 영역(표 2)의 틀과 내용에도 큰 변화가 없다(MÉNESR, 2015, 93-97; MÉNJ, 2023, 5-8). 다만, 3영역(개인 및 시민 육성)의 경우, 2015 교육과정에서는 부재하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2020 교육과정에서 등장한다(MÉNJ, 2023, 7). 5영역(세계 및 인간 활동의 재현)의 경우에서도 「역사·지리」, 「과학·기술」, 「도덕·시민교육」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2020 교육과정에서는 새롭게 추가되는 변화가 나타났다(MÉNJ, 2023, 9). 이는 기존의 프랑스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이 부재했다기 보다는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III. 프랑스의 Cycle 2 「세계탐구」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특성

프랑스 학제에서 초등 저학년에 해당하는 Cycle 2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과는 「세계탐구」이다. 이 교과의 목표는 ‘주변 세계를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획득 및 추론 능력의 계발, 시민성 함양의 두 가지이다(MÉNESR, 2015, 64; MÉNJS, 2020, 46). 이 교과는 내용적으로 볼 때, 과학과 역사 및 지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MÉNESR, 2015, 62-72; MÉNJS, 2020, 46-54), 예전 우리 교육과정의 「슬기로운 생활」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 「세계탐구」에서는 7가지 기능(compétences)이 설정되어 있으며(표 3), 두 시기 교육과정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2020 교육과정에 들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 택하기’에 ‘환경행위(éco-gestes)’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MÉNJS, 2020, 46). 또한, ‘공간

표 3. 프랑스 Cycle 2 「세계탐구」 교육과정의 기능영역

기능(Compétences)	하위 항목	기본영역 관련
• 과학적 접근 익히기 (Pratiquer des démarches scientifiques)	- 문제제기, 관찰, 경험, 기술, 추론, 결론 등 탐구 방법 익히기	4
• 상상하기, 구현하기 (maginer, réaliser)	- 일상생활 속 사물과 활동 상황 관찰하기 - 간단한 물체와 작은 몽타주 상상하고 만들어내기	5
• 도구와 방법 활용하기 (S'approprier des outils et des méthodes)	- 관찰, 측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거나 활용하기 - 주의 깊게 취급하기	2
• 언어 활용하기 (Pratiquer des langages)	- 프랑스어로 말하기와 글쓰기로 의사소통하기 - 삽화 문서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 책이나 문서 출전에서 정보 찾아내기 - 관찰 결과를 말하거나 여러 글 형태(메모, 목록, 그림, 표)로 표현하기	1
• 디지털 도구 동원하기 (Mobiliser des outils numériques)	- 그리기, 의사소통, 간단한 정보의 탐색과 상기를 위해 디지털 도구 알기	2
•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 택하기 (Adopter un comportement éthique et responsable)	- 지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태도를 통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위 계발하기 - 간단한 개인적 및 집단적 행위를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 개념 실천하기(éco-gestes) [†]	3, 5
• 공간 및 시간 상 위치 설정하기 (Se situer dans l'espace et dans le temps)	- 공간적 기준점 설정하기 - 지리적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 파악하기, 방위 찾기, 그리고 위치 설정하기 - 공간 재현수단 이용하고 창출하기 - 시간적 기준점 설정하기 - 사건 배열하기 - 연대기적 기준점 기억하기	5

[†] 2020 교육과정에 새로 등장한 개념임.

자료: MÉNESR, 2015, 63-64 및 MÉNJS, 2020, 46의 내용 재구성

및 시간 상 위치 설정하기'에서 2015 교육과정에는 '공간 지표 설정하기'의 하위 항목으로서 '지리적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 파악하기, 방위 찾기, 그리고 위치 설정하기'와 '공간 재현 수단 이용하기 및 산출하기'의 2개 항이 제시되었고, '시간적 지표 설정하기'의 하위 항목으로서 '사건 배열하기', '연대기적 지표 기억하기'의 2개항이 제시되었으나, 2020 교육과정에는 6개 항이 모두 동렬로 제시되는 재구조화가 있을 뿐이다(MÉNJS, 2022, 46). 그리고 앞서 법교과 기본공통 5대 영역과 마찬가지로, 「세계탐구」를 통해 연마하려는 여러 기능도 교과 내용적 성격이 강한 특성이 있는데, 지리와 관련해서는 '공간 및 시간 상 위치 설정하기'가 그것이다.

이처럼 「세계탐구」에서 연마해야 할 기능들을 내용 체계에 앞서 제시되는 것에서, 프랑스에서도 역량중심

의 교과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과 전체에서 추구할 기능들이, 예컨대 '공간 및 시간 상 위치 설정하기'에서처럼 교과의 핵심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차후 우리 교과 교육과정의 역량 선정에서 모종의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그것은 역량 선정에서 해당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해당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 등 교과 내용에 기반하여 역량을 선정하게 된다면 교과교육의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교과 내용과 유리된 역량은 공허하고, 실천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Cycle 2 「세계탐구」는,

- 생물, 물질과 물체의 세계 탐구(Questionner le monde du vivant, de la matière et des objets)

• 공간과 시간 탐구(Questionner l'espace et le temps)의 두 내용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중 후자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리 및 역사 내용에 해당한다. 그 설정 취지는 자기중심적인 시간 개념으로부터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시간 개념, 자기중심적 공간 개념으로부터 지리적 및 우주적 공간 개념으로, 곧 탈중심화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시대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의 이해, 공간과 인간 활동 간 상호작용의 이해 및 지리적 공간의 간단한 비교 능력 등을 배양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역사와 지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MÉNESR, 2015, 62-72; MÉNJS, 2020, 50-54).

Cycle 2의 「세계탐구」의 전체적인 내용 체계를 정리

하면 표 4와 같다. 중주제 역할을 하는 성취기준 중 ‘생활양식과 환경 간 기본적 상호작용 인식하기’는 2020 교육 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지만, 중주제로서 따로 내용 체계를 지니지는 않은 채 ‘생활양식 비교’ 내용에 편성되어 있다(MÉNESR, 2015, 71-72; MÉNJS, 2020, 52).

표 4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중주제(성취기준)별 학습 활동을 부연 설명한다면, 먼저 ‘공간상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표현하기’ 주제의 ‘위치 파악하고 표현하기’ 학습 활동에서는 가깝고 친숙한 공간으로부터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하여 학생의 탈중심화 발달을 돕도록 안내된다. 또한, 위치(positions) 정의와 관련한 어휘(왼, 오른, 위, 아래, 붙어, 밑, 앞, 뒤, 가까이, 멀리, 전면, 후면, 북, 남, 동, 서 등)와, 이동 정의와 관련한 어휘

표 4. 프랑스 Cycle 2 「세계탐구」 교육과정의 ‘공간과 시간 탐구’ 내용 체계

대주제	성취 기준(중주제)	주요 지식 및 기능
■ 공간상 위치 설정하기 (Se situer dans l'espace)	• 공간상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표현하기 (Se repérer dans l'espace et le représenter)	• 주위 환경에서 위치 파악하기 • 사물이나 사람을 서로 혹은 다른 지형지물과 관계 지어 위치 설정하기 • 친숙한 공간 및 덜 친숙한 공간에 대한 재현물 만들기 • 평면도 읽기 및 지도상에서 위치 파악하기(지도의 구성요소 포함)
	• 지도 및 지구본, 영상지도상에서 어떤 장소의 위치 설정하기(Situer un lieu sur une carte, sur un globe, ou sur un écran informatique)	• 지구와 세계에 대한 전체적 재현 인식하기 • 이미 학습한 여러 공간들을 지도 혹은 지구본에서 위치 설정하기 • 지역, 프랑스, 유럽 및 여타 대륙 위치 파악하기 • 지구는 다양한 형태의 여러 천체로 구성된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점 알기
■ 시간상 위치 설정하기 (Se situer dans le temps)	... 생략 생략 ...
■ 세계의 공간조직 탐구하기 (Explorer les organisations du monde)	• 남자와 여자의 생활양식과, 세계에 대한 여러 재현물 비교하기(Comparer quelques modes de vie des hommes et des femmes, et quelques représentations du monde)	• 서로 다른 시대 및 문화권의 생활양식 (의식주, 도구, 전쟁, 이동 등) 비교하기
	• 생활양식과 환경 간 기본적 상호작용 인식하기(Identifier quelques interactions élémentaires entre mode de vie et environnement)	• 사례를 통하여 생활양식과 환경 간 간단한 상호작용 인식하기 및 이해하기 [†]
	• 공간이 조직된다는 점 이해하기 (Comprendre qu'un espace est organisé)	• 행정구역, 촌락, 도시 등 주요 공간 및 기능 파악하기
	• 경관 인식하기(Identifier des paysages)	• 다양한 경관 인식하기

[†]2020 교육과정에서 신설됨.

자료: MÉNESR, 2015, 62-72 및 MÉNJS, 2020, 50-54의 내용 재구성

(앞으로, 뒤로, 우(좌)회전, 위로, 아래로 등)를 활용하여 먼저 말로, 그런 다음에 글로 어떤 시나리오를 쓰도록 제안한다.

‘공간 재현물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모형, 약도, 사진 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하여 재현하도록 하거나, 학교 공간 그리기 활동이 예시되어 있다. ‘지도에서의 위치 파악하기’ 학습 활동에서는 초등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의 구성요소(éléments constitutifs)인 제목(titre), 축척(échelle), 방위(orientation), 범례(légende)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지도읽기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우리보다 이른 학년에 지도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우리의 초등사회와 연구자나 교육자들에게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지도 및 지구본, 영상지도상에서 어떤 장소의 위치 설정하기’ 주제의 경우, 종이지도, 디지털지도, 평면구형도, 지구본 등 지구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대양, 바다, 대륙, 적도와 극, 기타 등등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태양계 지도 등을 통해 태양계 내 지구의 위치, 계절 변화, 음력 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도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지구의 존재를 거시적이고 우주적으로 조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점은 우리의 초등사회와 지리 영역(이하 초등지리영역) 교육과정과는 대비된다. 또한 단위 소주제 내에서 지역 → 국가 → 대륙 → 세계 → 우주로까지 공간적 스케일을 넓히는 학습 활동은 인상적인데, 이 역시도 우리의 초등지리영역에서 학년별 주제 배열의 틀로서만 경직되게 적용하는 지평확대 방식에 함의하는 바가 지대할 것이다. 공간이 지니는 특성상 부분은 전체와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더 잘 이해되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주제는 「수학」과 관련지어 학습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학의 ‘공간과 기하’ 대주제의 성취기준 ‘지형지물과 재현물을 활용하여 위치 표시하기’의 관련 지식과 기능으로서, 위치 파악하기, 관계 지어 위치 표현하기, 친숙한 공간의 재현물 만들기 이외에도, 지형지물을 이용한 방향 찾기, 공간상 움직임을 만들고 코딩하여 다른 학생이 그것을 재현하도록 하기, 일정한 공간에 대한 재현물을 제작하여 위치에 대한 의사전달하기, 로봇이나 화면상의 어떤 캐릭터의 움직임을 프

로그래밍하기 등의 학습 활동은 거의 지리 학습과 유사할 정도이다(MÉNÉSRS, 2015, 82-83; MÉNJS, 2020, 61-62).

이어 ‘세계의 공간조직 탐구하기’ 대주제는 학생 자신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전개되어온 조직화한 사회의 일원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데 그 취지가 있다. 중주제인 ‘생활양식 비교하기’와 관련하여, 의식주, 도구, 전쟁, 이동, 기타 등을 비교의 예시로 들고 있다. 이 중주제의 경우 2020 교육과정에서는 ‘의식주 혹은 이동을 사례로 삼아 생활양식과 환경 간 관계 이해’라는 새로운 학습요소가 추가되는 변화가 나타난다(MÉNJS, 2020, 53).

‘공간이 조직된다는 점 이해하기’ 중주제의 경우, 주요 공간의 특성 및 기능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공원, 일상경로 등 가까이 있는 친밀한 공간으로부터 행정구역, 촌락, 도심, 쇼핑센터 등 친숙하지만 좀 더 복잡한 공간으로 넓혀가는 방식, 삽화를 비롯하여 야외경관 사진, 항공사진, 일반도, 표, 그리고 프랑스 도시의 간단한 주제도를 활용하도록 예시되어 있다. 말하자면, 도시 환경을 사례로 삼아 인간사회가 주거, 상업, 산업, 행정 등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간을 어떻게 조직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의도라 하겠다.

이처럼 프랑스의 초등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공간, 공간조직 등 높은 수준의 지리 개념과 아이디어가 지리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제시되는 점, 다양한 공간자료를 접하도록 의도한다는 점 등은 우리의 상황과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우리의 경우 초등 저학년에서 공간조직이란 아이디어는 고사하고, 공간이라는 단어나마 쓰일 수 있을지, 또 항공사진이나 일반도(지형도), 주제도 등이 아무런 저항 없이 학습 자료로서 과연 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매우 회의적이다. 어린이의 인지발달단계가 마치 자료의 속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는 인식의 한계는 마땅히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중주제에서도 두 시기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비록 작지만 의미 있는 인식변화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환경차원에서 쓰레기처리, 녹지 공간, 교통, 대기 질을 사례로 도시(urbains) 관계자(시당국, 주민, 상인 등)의 역할’라는 문구로부터 ‘환경차원에서 쓰레기처리, 녹지 공간, 교통, 대기 질을 사례로 도시(urbains) 혹은 촌락(village) 관계자(시당국, 주민, 상인 등)의 역할’라는 문구

로 달라진 점이다. 곧, 2015 교육과정에서는 ‘도시’만 언급되었으나, 2020 교육과정에서는 ‘촌락’도 추가된 것으로서(MÉNJS, 2020, 53), 이는 공간에 대한 균형적 인식을 도모하고 무의식적 차별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사료된다. 관련하여 우리의 현행 초등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촌락 관련 내용이 사라지고, 도시 중심의 내용이 선정된 것은(교육부, 2022)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판단되며, 차후 교육과정에서는 반드시 복원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 국토의 대부분은 촌락 공간이고, 도시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상보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촌락은 인간의 중요한 정주 공간이란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관 인식하기’ 중주제의 경우, 여러 경관 및 야외사진, 항공사진, 지구본, 평면구형도, 자료 영화 등을 활용하여, 해안, 산지, 평야, 촌락, 도시, 사막 기타 지구의 다양한 경관과 그 특징을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삶의 실제 장소(lieux de vie)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주요 경관에 대한 학습도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두 시기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는 2015 교육과정에서는 부재하였으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와 과거의 경관 비교하기’가 2020 교육과정에는 새로이 추가되었다(MÉNJS, 2020, 53). 이는 역사 및 지리 내용을 통합한 내용으로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여겨진다.

IV. 프랑스의 Cycle 3 「역사·지리」 교육과정의 특성

1. Cycle 3 CM1 「역사·지리」의 지리영역 교육과정 특성

프랑스의 Cycle 3 교육과정 「역사·지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역사와 지리 학습을 통하여 자신과 시간 및 공간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정립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 5와 같이 교과 전체를 아우르는 7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두 시기 교육과정에서 변화는 없었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ycle 2의 「세계탐구」에서와 마찬가지로 Cycle 3의 「역사·지리」 교육과정에서

도 ‘위치 파악하기’가 주요 기능의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어, 프랑스 초등지리교육에서는 위치 학습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치는 지리의 5대 개념(fives themes of geography)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힐 정도로 지리 학습의 핵심 개념이자 아이디어로서(Boehm and Petersen, 1994), 세계 각국의 지리교육에서도 위치 학습은 공통적으로 강조된다(김다원, 2017).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전체의 관통주제(strand)로서 전통적으로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가 제시되어 왔는데(교육부, 2022), 이보다는 ‘위치’ 주제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는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고, 실제 삶의 상황에서도 효용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의 슬한 사건, 사고는 차지하더라도 지극히 공간적인 사상(事象)마저도 그 위치 소개나 설명이 부재한 신문기사, 방송뉴스, 연구보고서와 논문, 교과서, 여행 블로그 등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진공적(眞空的) 사고방식의 팽배 혹은 공간적 사고의 희박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은 우리 지리교육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고 사료된다.

프랑스의 Cycle 3 「역사·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지리영역의 중심 개념으로서 장소 소재적(所在的, domicile) 삶이란 의미의 ‘살다(habiter)’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래서 지리적 의미에서 삶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공간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관찰한다는 것으로 여긴다. 이는 프랑스 지리교육의 독특한 인식론적 출발점으로서, 프랑스 지리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된다. 이것이 인간과 장소 간 상호작용의 산물인 생활양식(modes d’habiter)에 대한 학습의 중시되는 이유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상의 모든 것을 위해 다양한 지리적 지식과 기능의 획득이 필요하다는 점과, 구체적인 지리적 사례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져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MÉNESR, 2015, 178; MÉNJS, 2023, 72-73).

Cycle 3 「역사·지리」의 CM1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표 6과 같다. 특이한 점은 Cycle 3의 「역사·지리」 CM1, CM2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성취기준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대신 연간 프로그램 기준과 교수 방법 및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도덕·시민교육」이나 「과

표 5. 프랑스 Cycle 3 「역사·지리」 교육과정의 기능영역

기능(Compétences)	하위 항목	기본 공통 해당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상 위치 파악하기: 역사적 기준점 설정하기 (Se repérer dans le temps: construire des repères historiques) 	<p>... 생략 ...</p>	1,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상 위치 파악하기: 지리적 기준점 설정하기 (Se repérer dans l'espace: construire des repères géographiq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지리적 기준점(repères géographiques)을 명명하고, 위치 파악하기(localiser) - 지리적 공간(espace géographique)에서 어떤 장소(lieu)를 명명하고, 위치 파악하기 - 공간을 명명하고, 위치를 파악하며, 특징짓기 - 서로 관계 지어 장소와 공간의 위치 파악하기 - 지리적 스케일(échelle géographique) 개념 이해하기 - 특정 지리적 기준점을 기억하고, 다른 맥락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알기 	1,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론하기, 과정 및 선택 정당화하기 (Raisonnement, justifier une démarche et les choix effectué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제기하기 - 가설 설정하기 - 검토하기 - 정당화하기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 얻기 (S'informer dans le monde du numéri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정보 체계 인식 및 활용하기 - 어떤 디지털 자원(출전)에서 정보를 발견, 선택, 이용하기 - 활용한 디지털 자원 인식하기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이해하기(Comprendre un document) 	<p>... 생략 ...</p>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와 지리의 서로 다른 언어 익히기 (Pratiquer différents langages en histoire et en géograph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와 지식을 구조화 및 주장하기 위해 글쓰기, 의사소통 및 교환을 위해 글쓰기 - 역사적 이야기 인식하기 - 사고와 의사소통 및 교환 위해 말로 표현하기 - 적절한 역사적 및 지리적 사전을 익히고, 이용하기 - 그래픽 저작을 만들어 내거나 완성하기 - 다양한 스케일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지도, 경관 혹은 장소 사진 활용하기 	1,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하고 공유하기(Coopérer et mutuali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과제나 협동적 저작을 개발하기 위해 그룹 내 자신의 일 조직하기, 다른 기능이나 지식을 활용하기 - 개인적 학습이 용이할 수 있도록 협업하기 - 협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디지털 도구 활용법 배우 	2, 3

자료: MÉNESR, 2015, 171-172 및 MÉNJ, 2023, 68-69의 내용 재구성

학·기술」 교육과정은 또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교육과정 문서는 일관되거나 통일적인 양식 보다는 교과 특성에 따라 여러 형식과 양식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표 6과 관련하여, 각 대주제별 교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면, 우선 Cycle 3의 도입 주제에 해당하는 ‘대주제 1’의 경우, Cycle 2의 반복 심화 학습주제로서 학생들 인식 공간의 지평확대를 위한 내용이다. 일

상경관 읽기와 주변 환경 발견학습 활동에서는 지형, 수문, 기후, 식생 등 환경에 대하여 기술(記述)하고, 도시, 촌락 등 인간의 공간 점유 형태와 연관된 기본적인 지리 용어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안내된다. 또한 이 대주제와 관련한 첫 물음으로서 “장소 소재적인 의미에서 ‘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qu’est «habiter»)’”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지리적 답을 찾도록 의도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장소

표 6. 프랑스 Cycle 3 CM1 「역사·지리」의 지리영역 교육과정 내용 체계

대주제	연간 프로그램 기준	교수 방법 및 내용
1. 내가 살고 있는 장소 파악하기 (Découvrir le(s) lieu(x) où j'hab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삶의 장소 특징 인식하기(Identifier les caractéristiques de mon(mes) lieu(x) de vie) • 내 삶의 장소 위치 파악하기 및 다양한 스케일에서 위치 설정하기(Localiser mon (mes) lieu(x) de vie et le(s) situer à différentes échel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경관 읽기 • 주변 환경 발견 • 지리적 용어 활용 기회 제공 • 위치 파악하기 • 상위 공간 단위 인식 등
2. 프랑스에서 지내고, 일하고, 교양 쌓고, 여가 갖기 (Se loger, travailler, se cultiver, avoir des loisirs en F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공간에서(Dans des espaces urbains) • 관광 공간에서(Dans un espace touristi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 공간 이해 • 공간의 기능 인식 • 생산 공간 특성 발견 등
3. 프랑스에서 소비하기 (Consommer en F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및 물 수요 충족하기(Satisfaire les besoins en énergie, en eau) • 식량 수요 충족하기(Satisfaire les besoins alimentai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의 지리적 의의 이해 • 장소 간 연계 탐구 • 생산·소비의 지리적 경로 이해 • 지속가능한 발전 이해 등

자료: MÉNESR, 2015, 178-182; MÉNJ, 2023, 73-75의 내용 재구성

기반의 삶을 가진다는 점, 그 장소는 프랑스, 유럽 등 더 큰 상위의 지역과 포섭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공간성 혹은 장소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어 ‘대주제 2’는 자신의 삶을 벗어나 다른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에 따라 지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도 자료, 사진, GIS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공간과 그 기능적 특징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또한 공간들마다 서로 다른 논리에 따라 조직되고, 이에 따라 이동(교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학습하는 주제이다. 그리고 관광 공간을 사례로 하여 우리는 일시적으로 어느 공간인가 머물기도 한다는 점, 그곳에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여러 관계자(acteurs)가 공존한다는 점 등을 발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생산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대주제 3’에서는 소비란 개인 및 집단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삶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일상이라는 점, 곧 소비가 관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표면이란 실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강조된다. 이 학습을 통하여 용도가 서로 다른 장소들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장소의 기능과 그들 간 연계를 탐구하고, 각 장소마다에서 역할이 서로 다른 여러 관계자들이 관여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간단 한 사례를 통하여 에너지, 물, 식량 수요의 충족을 위해

서는 생산, 공급, 분배, 이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복잡한 지리적 경로와 문제가 수반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안내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CM1(4학년) 지리영역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물음으로서 ‘장소 소재적 삶이란 무엇인가’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지리적 해답, 곧 삶의 공간성과 장소성에 대하여 여러 도구와 사례를 통하여 탐구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는 지리 학습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적 일관성 유지의 바탕이 되고, 인간의 삶을 공간적 차원에서 이해시키려는 지리 학습의 본질을 충족하며, 이를 통해 지리교육의 교육적 및 사회적 효과와 가치, 그리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리교육에 함의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사료된다.

2. Cycle 3 CM2 「역사·지리」의 지리영역 교육과정 특성

프랑스의 Cycle 3 CM2 「역사·지리」의 지리영역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표 7과 같다.

각 대주제별 교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면, ‘대주제 1’과 관련하여, 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직전의 CM1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의 제시와 함께, 일상생활이나 혹은 좀 더 장거리 여행에서 이용하는 이동수단과 교통망, 그리고

표 7. 프랑스 Cycle 3 CM2 「역사 지리」의 지리영역 교육과정 내용 체계

대주제	연간 프로그램 기준	교수 방법 및 내용
1. 이동(Se déplac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에서의 일상적 이동 (Se déplacer au quotidien en France) 세계 여타 장소에서의 일상적 이동 (Se déplacer au quotidien dans un autre lieu du monde) 프랑스, 유럽, 그리고 세계에서 도시 간 이동 (Se déplacer de ville en ville, en France, en Europe et dans le monde) 이동과 지속가능한 발전 (Déplacement et développement dur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수단과 교통망 탐구 통신 기반시설 탐구 다양한 유형 및 새로운 형태의 이동 탐구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동 탐구 등
2. 인터넷 덕에 세계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까지 가능해진 의사소통(Communiquer d'un bout à l'autre du monde grâce à l'Inter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의 세계 (Un monde de réseaux) 세계와 이어진 주민(개인) (Un habitant connecté au monde) 세계와 불평등하게 이어진 주민들(사람들) (Des habitants inégalement connectés dans le mon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의 기능 이해 인터넷 기반 시설 발전 프랑스 및 세계의 불균등한 인터넷 접근성 인식 등
3. 더 나은 삶터(Mieux habi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내 자연 장소 돌보기 (Favoriser la place de la «nature» en ville) 재활용하기 (Recycler) 생태 지구(地區)에서의 삶 (Habiter un écoquart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환경 개선 환경 보존 지속가능한 발전 사례 탐색 및 이해 등

[†]2020 교육과정에서 신설됨.

자료: MÉNESR, 2015, 178-182; MÉNJ, 2023, 73-75의 내용 재구성

통신 기반시설 등에 대한 조사와 탐구가 주요 학습 활동이다. 나아가 이동의 다양한 유형 및 새로운 형태에 대한 학습도 추구된다. 2020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아이디어가 적용되는 이동(교통)에 대한 탐구 학습도 새롭게 등장하는 변화가 나타난다(MÉNJ, 2023, 74).

‘대주제 2’는 Cycle 3의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 얻기’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서, 네트워크의 기능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사고할 기회를 주고자 의도한 것이다. 인터넷 작동과 발달에 필수적인 물질적 기반시설을 발전하도록 하고, 인터넷의 사용에 따라 즉시성과 근접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및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정의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그리고 프랑스와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접근성의 공간적 불평등에 대한 탐구도 주요 학습 활동으로 제시된다.

‘대주제 3’에서는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존이 주요 학습 내용을 이룬다. 행정구역, 지역사회, 대도시 등 다양한 지역 규모에서 ‘더 나은 삶’에 기여한 성과나 프로

젝트의 사례를 탐색하고, 도시녹지 공간, 온화한 순환(circulations douces), 그린 제방 및 회랑, 생물 다양성 개발, 재활용, 생태보존 장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관계 깊은 사례들을 다루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프랑스의 CM2(5학년) 지리영역 교육과정은 이동, 통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요 대주제이고, 각 대주제에서도 자신의 삶터로부터 프랑스, 유럽, 세계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을 동원하여 지리 학습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선정 및 조직의 특성을 보여준다.

V. 프랑스 초등지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지리교육적 함의

여기서는 앞 장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 교육과정의 일반 특성과 함의, 초등지리교육의 특성과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 교육과정의 일반 특성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교육과정 문서는 전체적으로 ‘Cycle의 성격 개관(les spécificités) – 범교과 기본공통 5대 영역(domaine du socle)의 상술 – 교과 교육(les enseignements)’의 체제로 구성된다. 교과 교육은 다시 대략 ‘성격 – 기능영역(compétences travaillées) – 대주제별 성취기준(attendus de fin de cycle), 내용, 교수 방법 및 학습 활동 – 학년별 주안점(repères de progressivité) – 교과 연계(croisements entre enseignements) 안내’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체제에 기초하여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전체적으로 교과 내 및 교과 간 연계와 융합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이를 보여주는 주요 장치의 하나는 ‘범교과 기본공통 5대 영역’의 설정이다(표 2). 이는 각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가 주축을 이루면서 프랑스의 학교교육 특히 Cycle 2~4(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지향점 역할을 하고, 동시에 전체 교과 간 횡적 연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프랑스의 교과 교육과정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지리교육적 성격이 강한 ‘세계 및 인간 활동의 제한’이 기본공통 5대 영역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어, 학교교육의 이른 시기부터 지리의 핵심 아이디어가 범교과적으로 가르쳐진다는 점은 프랑스 교과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위상을 가늠케 한다.

두 번째 장치로서 ‘교과 간 연계 안내’도 그러하다. 이는 막연한 추상적 권고가 아니라, 교과 간 실질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교과의 관련 주제, 지식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다. 「세계탐구」 및 「역사·지리」의 위치학습 관련 주제와 「수학」의 공간과 기하 주제 간 연계 안내는(MÉN, 2023, 105) 그 전형적인 예이다.

세 번째는 모든 교과에 설정되어 있는 기능영역도(표 3 및 표 5)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 기능영역은 상위의 기본공통 5대 영역과도 밀접한 체계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기본 공통 5대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과에 기반하여 선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교과 교육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이 같은 방식을 총론과 각론이 유리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또한 교과 간 종적

및 횡적 융합, 학습 내용의 교환적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는 의미 과잉의 수사로 가득 찬 총론과 교과 각론 간 부정합이 있는 우리의 교과 교육과정에 일정부분 함의점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학교교육에서 추구하는 상위적 기능 혹은 역량으로서, 정체불명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워딩보다는, 각 교과교육에서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나 핵심 아이디어, 혹은 주요 지식과 기능 중에서 교육적 가치 높은 것을 선정한다면 총론과 각론 간 정합성은 물론이고 교과교육의 정체성도 고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 경우 지리와 관련한 범교과 역량으로서 ‘삶의 공간적 차원’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초등지리교육이 지니는 특성과 그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 지리교육에서 기능(compétences)영역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과정 문서 체계에서 내용영역보다 먼저 제시되는 등 구성 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대주제는 물론이고 그 하위 주제의 관련 지식이나 기능, 그리고 연간 기준 프로그램 명칭이나 제목이 모두 한결같이 ‘동사형(動詞型)’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곧, 정태적인 두뇌 지식보다는 동태적 행위 지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동사형 제목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학습의 의도와 방향, 그리고 중국적인 성취가 무엇이고, 해당 학습과 역량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명사형 혹은 동명사식 주제나 제목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대비되며,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적지 않은 함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 지리교육의 내용 선정 면에서 프랑스 초등지리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장소 소재적 삶(habiter)’과 ‘공간 조직’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중심으로 Cycle 2(초등 1~3학년)에서는 위치 파악 및 표현, 생활양식 간 비교, 경관 인식 등이 지리 학습의 대주제로 제시된다. Cycle 3의 CM1(초등 4학년) 과정에서는 자기 삶의 특징 인식, 공간 간 기능적 다양성 및 연계성 이해, CM2(초등 5학년) 과정에서는 이동의 중요성 이해, 네트워크 세계의 특징 및 문제점 인식, 더 나은 삶의 구현 등이 지리 학습의 대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곧, 핵심 아이디어와 개념은 위치, 장소, 생활양식, 공간조직, 경관, 생산·소비의

지리적 과정, 이동과 통신, 지속가능 발전인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의 초등지리교육은 지역보다는 주제 중심의 내용 구성이란 특징을 지닌다. 물론 이들 주제는 각각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례 장소나 지역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내용 조직 면에서는 지평확대 방식을 저변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과정(학년) 별 대주제를 설정하기 위한 경직적이고 기계적인 틀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저학년(Cycle 2)에서도 ‘위치 파악과 표현’이란 단위 주제 내에서 보듯이 근린 공간으로부터 지역→프랑스→유럽→대륙→우주로까지 공간 스케일이 확장되기도 하고, ‘공간조직 탐구하기’ 주제에서는 세계 스케일의 공간이 동원되기도 한다.

Cycle 3 CM1과정의 ‘대주제 1. 자신의 삶터’에서는 삶터→프랑스→유럽, ‘대주제 2. 공간 간 기능적 차이 인식’ 및 ‘대주제 3. 공간 간 연계 이해’에서는 프랑스가 공간 단위로 설정된다. CM2과정의 ‘대주제 1. 일상적 이동’ 주제에서는 다시 일상→프랑스→유럽→세계로 스케일이 확장되고, ‘대주제 2. 네트워크 세계’에서는 세계, ‘주제 3. 더 나은 삶’에서는 근린규모의 공간 단위가 설정되는 등의 형식이다. 곧, 주제에 따라 다양한 공간 스케일을 자유롭고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내용이 조직된다는 점은 프랑스 초등지리교육의 특징이다. 그리고 학년별 첫 주제에서 지역으로부터 세계로까지 거시적 조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인상적인 면이다. 한편, Cycle 2와 3의 위치 관련 주제에서처럼 주요 개념과 아이디어에 대한 학습이 심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나선형적 조직 방식이 동원됨은 물론이다.

이상에서처럼 프랑스의 초등지리교육은 내용전체를 구속하거나 관통하는 틀로서보다는 단위 주제 조직의 원리로서 스케일의 다중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동심원 확대 방식이(서태열, 2018) 동원되는 특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지평확대 방식도 쓰이고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내용 조직의 경직적 원리로 활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주제와 화제 혹은 현상과 사상(事象)에 따라 다양한 차원과 공간적 스케일을 갖는 지리의 본질적 현상에 비추어 적절한 지리인식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지평확대

방식을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풍요롭고 다채로운 스케일의 지리 학습을 저해하는, ‘스케일의 뒷에 간한’ 우리 초등지리교육의 문제점은 차후 교육과정 개정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럴 경우 프랑스의 초등지리 교육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제별 동심원확대 방식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비추어 어떤 주제에서든 학년 단위에 관계없이 지구촌적 시각을 함양하기에 더 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프랑스의 초등지리교육은 ‘삶의 장소적 기반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공간적 관점’의 함양을 두 요체로 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지도 구성요소에 대한 학습 활동과 ‘habitants’라는 단어의 빈번한 등장이라고 본다. 프랑스 초등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작용의 주체로서 ‘인간’, ‘사람’이란 막연한 지칭 대신 거의 모두 장소적 혹은 공간적 근거지(domicile)가 강조되는 ‘habitants’라는 말을 쓰고, 관계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acteurs’라는 말이 쓰인다. 그런데 이들 단어는 모두 무대, 장소, 공간 등을 상정하거나 혹은 연상하는 말이다. 이는 지리 학습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프랑스 초등지리교육 설계자들의 깊은 이해와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기타의 특징으로서 프랑스 초등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사례 기반(à partir d'un exemple) 학습이 강조된다는 점이다(MÉNESR, 2015, 178; MÉNJ, 2023, 72-73). 대주제 혹은 중주제 하의 관련 지식과 기능 안내에서도 화제, 학습 활동 및 상황, 도구 및 참고자료 등에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예시된다. 이는 다의적 해석을 낳거나 아예 외면할 정도로 모호한 유의사항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의 교육과정과는 비교된다.

한편, 두 시기 간 교육과정은 체제 및 내용상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렇지만 2020 교육과정 Cycle 2의 「세계 탐구」에서 ‘환경 행위(éco-gestes)’ 개념의 등장, ‘생활양식과 환경 간 상호작용 이해’, ‘총력’의 등장, ‘현재와 과거의 경관 비교’ 주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2020 교육과정 Cycle 3 CM2(5학년)의 「역사·지리」 ‘이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새로이 편성되었다. 이처럼 생활양식과 환경 간 상호작용, 도시 공간 중심적 사고의 해소 노력, 경관의 변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동 등 비교적 의미 있는 지리적 내용이 교육과정에 새롭게 편성되거나 보강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상의 프랑스 초등지리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종합한다면, 우리의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의 전통적인 관통주제인 '인간-환경 간 관계' 이해로부터 삶의 장소에 대한 '공간조직 및 공간적 관점' 함양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진공이나 허공 혹은 관념과 추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 공간에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는 다양한 장소 및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며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될 기대한다. 또한 학년단위로 지평확대 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여러 공간적 스케일과 연계되는 주제별 동심원확대 방식 혹은 다층 스케일 적용 방식으로의 전환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프랑스의 최근 두 시기(2015 및 2020)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초등지리 교육과정의 특성과 변화, 그리고 우리의 지리교육에 주는 함의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초등지리교육은 저학년의 이른 시기부터 체계화하여 있고, 중학년 이후부터는 독립 교과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프랑스의 초등지리교육은 높은 교과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초등지리교육에서는 주제 중심의 내용 선정과 함께 단위 주제 내에서는 스케일의 연속성이 강조되는 지평확대 방식의 조직 원리를 취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스케일의 다양성이 강조되는 동심원확대 방식이 동원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실존 공간인 삶터에 대한 이해와 세계를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의 함양을 의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프랑스의 2020 초등지리교육 과정에서는 직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내용 및 체제상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생활양식과 환경 간 상호작용, 도시 공간 중심적 사고의 해소 노력, 경관의 변화, 그리

고 지속가능한 이동 등 의미 있는 지리적 소재와 화제가 보장되는 등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도 나타났다.

프랑스의 초등지리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함의는 지리교육의 본연성(本然性, authenticity)이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의 측면에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이다. 지리교육의 본연성과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은 '삶의 공간적 차원' 및 '세계의 공간적 다양성' 이해라는 점, 한마디로 '공간적 관점'의 함양이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학습의 강화, 공간 관련 어휘의 활용 빈도 증대, 학년별 보다는 주제별 지평확대 방식의 적용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함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의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는, 저학년부터도 추상성이 높은 술한 개념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리 관련 개념의 활용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인색한 풍토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풍토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든 어린 학생들은 이미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른들이 그 기회를 빼앗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랑스 어린이들보다 한국 어린이들의 지적 역량이 낮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초등지리 교육과정은 다양한 공간 스케일을 넘나들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실존 공간으로서의 삶터에 대한 이해와 세계를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을 함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우리의 초등지리 교육과정 구성과 설계에 일부분 분명한 함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최근 프랑스의 초등지리 교육과정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통해 우리의 초등지리교육 발전에 주는 함의를 살피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김다원, 2017, "각국 지리교육에서 위치학습의 내용과 방법 분석 연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초·중학교 지리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1), 49-64.

서태열, 2018, 지리교육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이간용, 2013, “프랑스 지리 평가 특성 분석: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5), 786-801.
 이상균·권정화, 2011, “프랑스 지리교육사 150년의 전통과 최근 동향, 그리고 전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85-204.
 이상균·김병연, 2019, “프랑스 중등 지리교육과정 구성방식의 시기별 특징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5(3), 392-404.
 이상균·마갈리 아흐두앙, 2017,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크로키의 등장배경과 제도적 위상, 그리고 활용사례”, 한국지리학회지, 6(3), 369-380.
 이상균·정프랑수아 떼민느, 2014, “최근 프랑스 지리교육과정 개정 동향과 지리과 핵심역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1), 45-56.
 이서영·이상균, 2020, “2015 개정 프랑스 초등 지리 교과서 분석”, 교원교육, 36(3), 1-19.
 프랑스 한국교육원, 2022, 프랑스의 학제, <https://educoree.fr/france-edu/cursus/>.
 Boehm, R. G. and Petersen, J. F., 1994, An Elaboration of the

Fundamental Themes in Geography, *Social Education*, 58(4), NCSS, 211-218.

MÉNESR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la Recherche), 2015, *Programmes Pour Les Cycles 2 3 4*, www.education.gouv.fr.

MÉNJ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3, *Programmes du Cycle 3*, www.education.gouv.fr.

MÉNJS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0, *Programmes du Cycle 2*, www.education.gouv.fr.

접 수 일 : 2024. 08. 02

수 정 일 : 2024. 08. 22

게재확정일 : 2024. 08. 23

교신: 이간용, 32553,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봉황동), 공주
 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kylee@gjue.ac.kr,
 041-850-1633)

Correspondence: Khan Yong Lee, kylee@gjue.ac.kr